도교육청, 제2기 교육거버넌스위원회 구성 · 운영

민·관 교육협력 강화

오늘부터 공개위원 모집… 교육복지 개선 관련 사항 등 심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민관이 함께하는 교육협력 강화를 위해 제2기 교육거버넌스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교육정책 수립의 민주·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에서 실효성 있는 교육협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제2기 전라북도 교육거버넌스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2기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임기는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위원은 총 40명이다. 당연직 3명, 전북도청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위원 5명, 도의회 추천 위원 3명, 공개모집 위원 11명, 민간단체 위촉위원 18명이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30일까지 공개위원을 모집한다. 14개 시?군의 인구구성 비율에 따라 전주 3명, 익산 2명, 군산 2명, 정읍고창·남원임실순창·김제부안·완주진안무주장수 각각 1명씩이다.

또 민간 위촉위원은 학계, 교육계,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장애인·다문화·예술·환경분야 등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추천한다.

교육거버넌스위원회는 △교육복지 개선에 관한 사항 △기관·민간단체별 또는 교육분야 사업별 관련 업무 제도 개선 △기관·민간단체와 연계한 교육협력 관계의 제도화 등을 심의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 확대를 통한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 전북교육발전을 이끌고자한다"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투명성·민주성·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교육 의제들을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저탄소 환경급식 실천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전북도교육청, 한긍수 신임 정책공보관 선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공개모집을 통해 한긍수 신임 정책공보관(개방형직위)을 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석인 정책공보관을 뽑기 위해 지난 7월 공개모집을 실시, 별도로 구성된 선발시험위원회의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한긍수 정책공보관을 20일자로 임용했다.

정책공보관은 전북교육정책 총괄 및 조정, 전북교육발전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 학생 건강·복지·이용 시설의 안전 정책 총괄·조정, 홍보 종합기획 및 운영 총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한긍수 신임 정책공보관은 전주고를 졸업한 후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사 과정을 마친 뒤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또 한남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부교수, 한국콘텐츠진흥원 본부장,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 전시 총괄감독 및 전주MBC 프로듀서 등을 역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전북교육정책 총괄 및 조정 등의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기능성 실내거축 마감재, 국가 신기술 지정

전북대 박희준 교수 개발

전북대학교 박희준 교수(생활대 주거환경학과)가 개발한 기능성 실내 건축 마감재가 산림청으로부터 국가 신기술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과 2016년 난연목재 개발과 흡음 및 난연성 건축 마감재 개발을 통해 국가 신기술 인증을 받은 이후 세 번째다.

국가 신기술 인증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신기술은 산림청의 '목재자원의 고부가가치 첨단화 기술개발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개발 성과다. 목재 실내 마감재의 흡습 및 방습속도와 흡습량 및 방습량을 개선시킴으로써 실내 습도조절에 기여할 수 있는 실내 건축 마감재 제조 기술이다.

이 기술은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최근 국가녹색기술과 국가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도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의 개발 기술이 기술이전을 통해 산업화의 길로 들어서게 돼 국민의 실내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희준 교수는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면서 목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내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국가신기술 인증까지 받게 돼 기쁘다"며 "목재가 가진 다양한 장점에 대학에서 개발한 우수 연구 기술을 덧입혀 사람과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저탄소 환경급식 함께 해요'

도교육청, 저탄소 환경급식 실천 운동… 교직원 · 학생 참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저탄소 환경급식 실천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기후 위기에 대응 지속 가능한 학교급식 운영으로 행복한 교육급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채식식단 식재료 지원사업 운영학교(40교)에 식재료 구입비 52일분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채식급식 중점학교(8교)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AI기반 푸드스캐너 구입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점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저탄소환경급식 프로그램과 수업자료를 개발 적용하고, 자율적으로 저탄소 급식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학교에서는 '지구 살리기 운동, 우리 모두 참여해요', '북극곰을 안전하게 지켜요' 등의 주제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행사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탄소배출을 줄이는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 오존층 보호의 날'인 지난 16일에는 김제영양교과동아리 소속 영양교사들이 저탄소 환경급식 실천 캠페인의 날을 운영해 교사와 학생이 녹색지킴이로서의 역할에 동참하도록 했다. 이날 채식공통식단, 캠페인 자료 등을 배식대 등에 게시하는 등 교직원과 학생들이 저탄소급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채식 공통식단을 경험한 김제고 학생은 "학교급식으로 환경운동에 동참한다는 게 신기했다"면서 "동생이 다니는 학교도 같은 식단이라서 더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저탄소 환경급식(채식급식)이 교육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연수 및 꾸러미 교육자료 제작 배부, 채식 식단 레시피 개발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생태환경교육 및 영양·식생활 교육이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청소년들의 식습관은 학교와 가정이 연계한 식생활 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지역민과 함께 하는 군산대 영상 공모전'

내달 10일까지 신청접수

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가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의 군산대에 대한 다채롭고 재미있는 시선을 담은 영상을 공모하고 있다. '지역민과 함께 하는 군산대학교 영상 공모전' 수상작들은 군산대학교 공식 SNS(https://www.youtube.com/channel/UCMa-iiiD8RCPHvx2XAHwzQ)에 게재되어 많은 사람들과 공유될 예정이다.

공모 분야는 유튜브, 숏폼 등 대학 홍보와 관련된 영상으로, 국내외 미발표작이면 된다. 군산대학교에 관심이 있는 지역민과 대학 구성원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개인 및 팀별 공모가 가능하되 팀당 최대인원은 4명까지이다. 공모주제는 군산대학교와 관련된 내용이면 모두 가능하다.

군산대학교는 주제 예시로 △학생복지, 취업지원, 대학시설 등을 웹드라마 형식을 빌려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내용 △학과 소개 및 비대면 수업 등 온텍트시대, 뉴노멀에 관한 이야기를 재치있게 표현한 내용 △광고,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장르를 불문하고 군산대학교에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소재로 한 영상 등을 내걸고 있다.

접수 기간은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고, 출품 수량은 개인 또는 팀당 한 작품으로 제한하되, DSLR 또는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 및 편집한 영상이면 된다. 유튜브는 3분 이상 5분 이내, 숏폼은 1분 내외 길이여야 한다.

공모전 심사는 내외부 전문가들이 창의성, 완성도, 홍보적합성, 대중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할 계획으로, 유튜브 대상(1)에는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2) 각 50만원, 우수상(3) 각 30만원, 장려상(5) 각 15만원 상금이 수여되고, 숏폼에는 최우수상(2) 각 20만원, 우수상(3) 각 15만원, 장려상(5) 각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접수는 참가신청서, 영상파일, 작품설명서를 첨부해 이메일(hamjinu79@kunsan.ac.kr) 접수하면 된다. 참가신청서는 군산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군산대학교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지역사회와 군산대학교와의 공감대를 넓혀 협력네트워크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큰 부담감없이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군산대학교 구성원은 물론 지역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동참하는 공모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포스트팬데믹 시대, 새로운 경제현상 · 포용적 정책'

전북대 문성만 교수, 한국연구재단 신규 연구과제 선정

2025년 5월까지 3년동안 1단계 소형사업 통해 과제비 지원

전북대학교 문성만 교수팀(경제학부)이 '포스트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경제 현상과 포용적 경제정책'이라는 연구주제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의 신규과제에 선정됐다고 20일 전했다.

이 사업을 통해 연구팀은 포스트팬데믹 시대에 경제주체들이 직면한 새로운 경제 현상(디지털 전환, 탈세계화, 큰 정부의 부활)을 규명하고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용적 경제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 교수팀은 2025년 5월까지 3년간 1단계 소형사업을 통해 매년 1억5,000만 원씩(간접비 별도) 연구과제비를 지원받게 되며, 이후 단계평가를 거쳐 최장 10년간 지원 받는다.

특히 소형단계에서부터 전임 연구인력을 연구진에 포함시켜 박사수료생의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차세대 연구 인력 육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책임자인 문성만 교수는 "포스트팬데믹 시대 뉴노멀로 이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예측하는 범 사회과학 차원의 장기 연구를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미래인재 양성 · 기업가형 대학 육성 지역 · 국가발전 도모

전주대 LINC 3.0 사업단 서포터즈 1기 출범… 6년동안 260억원 규모 사업비 지원받아

전주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지난 19일 본관에서 서포터즈 1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주대학교 LINC 3.0 사업단(단장 주송)은 지난 19일 본관에서 서포터즈 1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LINC 3.0 사업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으로서 미래인재 양성 및 기업가형 대학으로 육성해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를 목적으로, 향후 6년 동안 26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이번 1기 서포터즈에는 안지은 학생(환경생명과학과 3년) 외 14명이 선발, LINC 3.0 사업과 관련해 대내외로 다양한 활동 및 산학연협력 선도를 위한 홍보대사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활동 성과에 따라 마일리지 장학금도 수여할 예정이다.

주송 단장은 "다양한 산학연협력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서포터즈의 역할을 기대하며, 수요자 중심인 학생들의 관점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태권도로 만나는 '흥부전'

우석대 태권도학과, '태권! 놀부!' 29일부터

총 7회 걸쳐 소리문화전당 야외공연장서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시범단이 흥부전을 각색한 태권 소리극 '태권! 놀부!'를 무대에 올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우석대 태권도학과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2022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시범단 지원사업'에 선정돼 마련된 것.

공연은 9월 29일(오후 4시)과 30일(오전 11시·오후 4시), 10월 1일(오전 11시·오후 4시)과 2일(오전 11시·오후 4시) 등 총 7회에 걸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된다.

태권 소리극 '태권! 놀부!'는 짜임새 있는 스토리 구성과 태권도의 품새·겨루기·격파 등을 응용해 웅장하고 흥미로운 볼거리로 구성됐다.

사업 책임자인 윤정욱(태권도학과) 교수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공동 제작한 소리킥 '흥부 소리를 치다!'를 시작으로 우리 학과는 태권도 활성화는 물론 공연문화산업에 선두주자로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공연이 차별화된 태권도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우석대학교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태권도진흥재단이 주관한다.

/장은성 기자

손 씻기 ·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